[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① 송광사에서 실상사까지

오심스님 불교신문 주간 | 승인 2021.10.13 14:04 | 호수 3686 | 댓글 0

"내게 이 여정은 보물 찾으러 떠나는 '수행의 길'"

국난극복과 불교중흥 발원하는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 여정
우리는 선재동자가 되어
佛法僧 세 가지 보물을 찾아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보물을 찾는
지도가 되길 바라며...

오심스님

누구나 사람들에게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그것을 보물이라고 한다. 사회생활을 하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물질적인 것에 많이 치중하는 하고 산다. 각자의 마음속에 불을 밝히며 사는 보물이 물질적이거나, 권력이거나, 지식일 수도 있다. 아니면 스스로 세운 비물질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그것을 가치관 아니면 신념라고도 표현하기도 한다. 그 보물을 한 점 등대로 여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 중생계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다. 그 길이 바른 길이기를 바라며....

불법승(佛法僧)...

동진 출가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내게 가장 큰 보물은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리고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승가의 도반들이다.

지금도 나를 지키고 있는 관세음보살님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한 치의 망설임 없이 "불법승"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 이 여정은 나에게는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수행의 길이다. 어린 시절 읽었던 <보물섬>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순례가 시작되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다. 우리는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되어 불법승 세 가지 보물을 찾아 한발 한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10월1일부터 열여드레 동안 천리를 걷는 순례의 장정이 첫 번째 보물을 찾고 있는 승보사찰 송광사에서 입재되었다. 상월선원 회주 자승스님이 이끄는 160여 명의 순례단이 동참한 이 자리는 세 가지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원정대를 배웅하기 위해 많은 사부대중들이 운집했다.

송광사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을 뒤로 하고 두번 째 보물인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있는 법보사찰 해인사를 향해 한 발 한 발 내딛었다.

불교신문TV 더보기

포토뉴스

섹션별 최신기사

종단 "막말 정청래 사퇴하라"...1인 차량...
전국 심곡암,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 ...
사회&국제 세상을향기롭게, 굿윌드자...
인물 [동정] 정도스님, 가사불사 회향 점...
대중공사 [여시아문] 아이들에게 배운다

"SNS에서 뉴스를

불교신문TV

행복을 여는 화암

많이 본 기사

1 [원과스님의 해
2 前 경주 기림사
3 불조 혜명 계승
4 대종사·명사 스
5 총무원장 원행스
6 "아들 출가시킨
7 423km 대장정 호
8 [불교신문이 만
9 "수륙재로 모든
10 BBS불교방송 신

최신뉴스

"막말 정청래 사퇴하
[동정] 정도스님, 가사
심곡암, 코로나19로
강릉사회복지관 소외
영등포장애인복지관
청주불교방송 11월6
[25교구 뉴스] 봉선사
역사적 상처 치유...1
정해림 승무 '2021 정
일진베어링, 경주장애

세 가지 보물을 찾는 원정대 단장 자승스님을 선두로 스님들은 가사장삼을 수하고 길을 나섰다. 우리가 걷는 이 발걸음이 누군가에게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보물을 찾는 지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한걸음씩 내딛는다.

산천의 파란 하늘과 여물어가는 곡식들, 가을의 정취를 느끼는 것도 한순간 하루 종일 걷다보면 시야에 들어오는 모습 또한 여여하게 다가온다. 그러면 밖으로 기울였던 정신이 내면으로 집중이 된다. "이 뭣꼬?" 화두를 부여잡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하면서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으로 집중하며 걷는 이 순간도 선방에서 좌정한 듯 정신이 올곧게 모아진다.

첫날 숙영지인 곡성에서 잠을 자기 위해 침낭안에 들어가니 텐트 위에는 밤하늘의 별이 까만 밤 등불이 되어 어른거린다. 풀벌레소리를 들으며 삼보사찰 천리 순례의 첫 밤은 저물었다.

다음날 새벽3시에 둘째 날 순례단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가사를 수하고 아침 예불을 마치고 새벽기도를 하듯이 순례단은 대열을 정비하고 길을 나선다. 이 날은 사성암까지 25km를 걷는다. 새벽이슬이 방울방울 대지를 적시고 있었다. 촉촉한 물기가 신발을 적셨지만 바퀴를 굴릴 때 약간은 기름을 쳐주면 잘 돌아가듯 법륜(法輪)을 굴리는 윤활유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진다. 세상의 만물은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하며 출발한다.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한 상월선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3일 제19교구본사 화엄사를 향해 가고 있다. 송광사=김형주 기자 cooljoo@ibulgyo.com

첫 번째 대열에 속해 걷다보니 가끔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몇 백미터 여법하게 묵언하며 걷는 스님들의 모습이 장관이다. 예전에 미얀마 성지순례를 갔을 때 그곳 스님들이 새벽안개가 낀 아침에 탁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감탄했던 신도들이 생각이 났다. '지금 이 순간 삼보사찰 천리길 순례단을 보면 더욱 환희심이 들 건데...' 하며 흐뭇한 미소가 나도 모르게 나왔다. 한국불교의 중흥 발원하며 걷는 우리 순례단의 모습은 사명감이라는 결의가 담겨 있어 더욱 여법하게 느껴졌다. 걷는 발걸음마다 수행이며 기도다보니 모두가 수행자라는 자부심이 어려 걷는 순례자마다 얼굴이 해맑았다.

3일째 되는 날 지리산 화엄사를 향해 길을 나섰다. 화엄사에서는 화엄축제가 한창이었다. 그 축제에 맞추어 순례단은 잠시 여정을 풀었다.

순례 4일째. 사성암을 향하는 여정이 계속됐다. 자동차로 오를 때도 힘들다고 하는 시암재 고개 800m를 두 발로 오르니 그 감회도 새롭다. 그 힘겨운 고비에서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웃음으로 서로 격려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역시 부처님 제자"라는 동사섭(同事攝)이라는 강한 동지애가 싹트는 것 같다.

다음날 시암재, 성삼재, 남원을 걸쳐 실상사에 도착했다. 벌써 세 가지 보물을 찾으러 떠난 지 6일이 지났다. 한발 한발 우직하게 걷다보니 이제 순례길이 보름도 남지 않다니....

수행&신행 '맘마미아' 뮤지컬 가수 등...
문화 정해림 승무 '2021 정해림 찰나의 ...
기획&연재 [주제가 있는 사찰 기행] 화...
출판&문학 부처님의 원음으로 다시 읽...
학술&문화재 동국대 동서사상硏 제16...
복지&상담 강릉사회복지관 소외계층 ...

첫 종단본 《불교성전》
– 종정 법어, 총무원장 ...

법공양 (기획PR)

지름길도 없고, 누구도 꾀를 내거나 대신할 수 없다. 오롯이 자신을 던지며 기도하며 같이 걷는 순례자들의 모습이 감동적이다.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히말라야 성지를 찾아가며 삼보일배 하는 티베트 순례자들 모습도 뇌리에 겹쳐진다. 길에서 만난 모든 산천이 스승이고 도반같이 정겹다.

예전에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주인공이 미국 대륙을 무작정 달리는 것만으로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는 내용이 있다. 우리가 수행으로 걷는 이 길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곳곳에 경제를 살리고 부처님 탄생 때 발걸음마다 연꽃 피우듯 향기로운 연향(蓮香)이 곳곳에 피어나기를 발원해본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무릇 하늘은 나에게 큰 꿈을 실현하라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냥 살려고 태어나지는 절대 아닐 것이다.
살펴 보건데 그 것은 부처님의 일이고 나의 일이다.

오늘 나는 길을 떠난다.
세상의 보물인 세 개의 보물을 찾아서

하나는 승가요.
둘은 부처님의 가르침
셋은 부처님이 되는 것.

그것을 찾으려는
천리를 걷는다.

천리도 한걸음 부터.

가보자 걸어보자.
걷다보면 느낄 것이오.
걷다보면 알 것이오.
걷다보면 깨달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건
그냥 태어나지 않은 것이다.

불교신문 주간 ohsim@ibulgyo.com

[불교신문3686호/2021년10월12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심스님 불교신문 주간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 [삼보사찰 천리순례] 사명감 하나로 밤낮 ...
- [삼보사찰 천리순례 14일차] ② '적극적 포...
- [삼보사찰 천리순례 15일차] 긴장 속 호국...
- [삼보사찰 천리순례 16일차] 길 위 수장의 ...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길에서...] ...
- [오심스님의 삼보사찰 천리순례 길에서...] ...

댓글 0

댓글입력 권한이 없습니다.

✓ **최신순** 추천순

우)03144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67(견지동),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 편집국 : 02-733-1604 | 구독문의 : 02-730-4488 | 광고문의 : 02-730-4490
사업자등록번호 : 102-82-02197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6446 | 창간일 : 1960-01-01 | 등록일 : 1980-12-11
제호 : 불교신문 | 발행인 : 원행스님 | 편집인 : 현법스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여태동
Copyright © by 불교신문. 기사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POWERED BY NC